「최주섭 부회장, 대통령 포장 수상」

스티로폼 재활용 사업 성공적 수행과 최종제품 수출에 기여

(사)환경동우회 사무총장과 환경장학기금 설립 추진단 공동단장 활동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최주섭 상근부회장은 지난 6월 5일 환경부가 주최하는 '환경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포장을 수상했다.

수상자는 1995년 5월부터 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에 상근임원으로서 재활용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서 발포스티렌 재활용율을 2006년 69%까지 끌어올렸으며, 최종제품인 그림액자몰딩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그림액자제품의 시장점유율 90%, 해외시장 수출실적 2005년 한해 57,630천 달러를 획득토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사)환경동우회 사무총장 직무수행으로는 200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사)환경동우회 사무총장직을 자원하여 환경정보의 교환 및 회원 간 친목도모에 열정을 다하여왔으며, 2004년 11월 환경청 발족 후 1990년대까지 주요 환경정책 수립과 관련된 동우회 회원들의 비화를 수집한 '오염의 풍랑을 헤쳐 간 환경호 사공들의 이야기'의 편집 및 출판위원으로서 직무를 다하였다.

환경장학기금설립추진단 공동단장으로는 2003년부터 매년 '선후배 공직자 하나 되기 행사'의 실무책임자로서 환경부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동 수행하여 국가환경보전정책 발전 및 홍보에 기여하여 왔으며, 2005년 9월부터 환경장학기금설립추진단 공동단장으로 창립에 기여하고, 현재 환경장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환경장학회는 금년 2월까지 총 1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세상을 떠난 환경공무원 자녀들을 선정하여 매년 장학금 1천500만원을 전달하여 이웃사랑의 본을 보이고 있다.

환경관련 자문, 학술 및 교육 활동으로는 1996년 이후 환경부 중앙환경홍보자문위원, 폐기물처리분과위원, 환경공무원교육원 강사, 산업자원부 재자원화기술개발 전문위원, 서울시 쓰레기문제 시민협의회 위원, 한국폐기물학회 정책분과 간사 및 기획정보화위원장 홍보이사, 감사, 환경독성학회 부회장, 한국전과정평가학회 재무이사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정책 수립의 자문, 홍보,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

1994년 이후 환경공무원교육원, 경기도공무원교육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군부대, 서울시내 초중등학교 경희대 등에서 환경보전의 길 등 특강을 수행하여 대국민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해오고 있다.

해외활동으로, AMEPS(아시아스티로폼생산자기구) 이사 및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제협력을 통한 재활용기술정보 교환 및 우리나라의 재활용기술 전파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최 부회장은 지난 2001년 환경전문기자회의 올해의 환경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